

# 서민 울리는 불법 대출 기승

## 스마트폰 이용 '통신깡' 15명 검거 금전 희망자 모집해 2억 부당이득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해 뒤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 이를 불법 유통한 개통 총액 원모(3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모집객 김모(35)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지난 1월 1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123명의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이들 명의로 통신회사에 가입, 스마트폰 227대를 개통한 뒤 이를 국내 또는 중국에 불법 유통해 사가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이 인터넷상에서 중고로 활발히 거래되면서 현금 용법이 가능하고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신규가입 신청서의 본인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주로 100만원 내외의 소액이 필요한 서민들

에게 대출을 미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학생, 자영업자, 주부 등인 피해자들이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으로 대출받아 만질 수 있는 돈은 30만~35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유심(USIM)칩을 제거하면 해당 스마트폰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기계가 되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만 하면 별다른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컨트리락'(유심칩 잠금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도 '통신깡'을 부추킨 이유로 지적했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자금 유통은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하는데 만약 이용자들이 통신기기 할부금을 갚지 못하거나, 위약금 없이 가입을 해지하려다 약정된 사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24일 '스마트폰 깡' 개통 총액 원모(36)씨 등 일당 15명으로부터 입수한 컴퓨터·유심 칩·광고 전단지 등 100점을 공개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불법 사금융 대부업자 등 41명 적발 연 이율 300% 넘기도... 피해자 속출

최근 신용불량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 대부행위와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올초부터 경찰에 적발된 광주 지역 대부업법 위반사범은 41명에 이르고 있다.

24일 광주동부경찰은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고리대금업'을 해운 무등록대부업자 정모(29)씨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검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 명합형 홍보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박모(52)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매일 2만원씩 받아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등 3월 초부터 최근까지 15명에게 모두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주동부경찰은 명합형 전단지를 보고 온 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벌인 이모(3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9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김모(39)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매일 2만원씩 받아 연 304.9%의 이자를 받는 등 6명에게 모두 12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고 불법대부업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법정 이율한도(연 44%)보다 많은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는 6월 말까지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범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행위 ▲폭행·협박·체포·감금 등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학생 취업·고수의 빚자 다단계 판매 모집 ▲무등록·물품공매, 재화유통을 가정한 금전거래 등 불법 다단계 ▲부동산·주식·벤처사업 빚자 투자금 모집 등 유사수신 행위 등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강·절도 소탕 100일 단속 광주지방경찰청 직원들이 24일 광산구 소촌동 청사에서 '절도·강도·성폭력 소탕 100일 특별단속' 선포식을 갖고 범죄 퇴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부실공사 눈감아 준 신안군청 공무원 입건

목포해양경찰은 24일 부실공사를 알고도 준공검사를 해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신안군청 임모(31·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흑산면 하태도 선착장에 길이 14m·세로 30m의 부잔교와 길이 20m의 다리(도교) 설치 사업과 관련, 기존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설계 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검사까지 내 준 혐의다.

이 때문에 완공 이후 부잔교를 연결하는 다리가 강풍에 파손돼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등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고 해경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5월에 떠난 5월의 증언자

'부미방'으로 80년 광주 알린 김은숙씨 숨져

### 올 '오월 어머니상' 수상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을 주도했던 김은숙씨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5월에 눈을 감았다. 위암 투병중이던 김씨는 24일 오전 7시40분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숨졌다. 향년 52세.

부산 출신으로 광주와 인연이 없던 김씨는 고신대 학생시절 미국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에 대해 침묵하는 데 반발해 1982년 문부식 등 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년8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을 최초로 제기했던 이 사건은 5·18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속명파도 같은 광주항쟁과의 인연으로 삶을 송두리채 헌납한 김씨는 '5월의 객(客)'으로 밀려났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지만, 광주의 관



심 밖에 놓여 있었다. 김씨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은 그를 통해 80년 광주를 기억하는 전국의 소시민들이 주도

했다.

지난 8월 5·18 구속자 어머니, 유족, 부상자 등이 주축이된 사단법인 오월어머니집이 그에게 쉰 제5회 오월어머니상을 때늦은 보답이 됐다.

광주·전남진보연대 류봉식 집행위원장은 "80년 5월 당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애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동안 이들을 잊고 지냈다"며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5·18 기념재단조차 (김씨와 같은 인사들) 외면하고 있다. 5·18 전국화를 위해서는 결코 이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씨의 빈소는 녹색병원 장례식장 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9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시민 절반 "5·18 진상규명 미흡"

### 한국사회조사연 조사

광주 시민 절반 이상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사단법인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 사는 20~80세 성인 400명을 상대로 전화조사한 결과 '5·18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7%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5%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해,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고 느낀 시민이 총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7%는 "많이 밝혀진 편"이라고 답했으며, "거의 모두 밝혀졌다"는 응답자는 4.1%에 불과했다.

기념행사 참여율도 저조했다. 지난 5년간 5·18 기념행사 참여 경험을 묻자 52.4%가 "없다"고 답했으며 올해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20.6%, 앞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은 41.9%에 그쳤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산부인과 의사 사칭 음란전화 40대 구속

### 광주동부경찰

광주동부경찰은 24일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여성들에게 음란전화를 건 박모(45·일용직)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 1월18일부터 지난달 4월7일 사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연결된 이모(여·34)씨 등 여성 5명에게 대학병원 산부인과 설문조사를 핑계로 음란한 질문을 건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같은 혐의로 4차례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박씨는 "방송 출연 문제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에 응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생리주기, 속옷색깔, 부부생활 등을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발신지표시제한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남성이 받으면 바로 끊는 행위를 벌였으며, 피해를 입은 여성 중에는 114내원과 주부 등도 끼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나원침 (8321) 김종두



## 저질 난방유 불법 유통 제조업자 등 2명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24일 폐유와 정제유를 혼합한 난방유를 불법 유통한 백모(47)씨에 대해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업자 윤모(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2009년 1월 초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광주시 광산구 비야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카센터 등에서 수거한 폐유와 정제유를 섞어 난방유 약 75만ℓ (40억원 상당)을 만들어 광주·전남 지역 공단 등 50여곳에 판매해 4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중 가격보다 100원 가량싼 리터당 530원에 난방유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저질 난방유는 공단 등지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됐으며, 공장주 등은 '가짜 석유'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구입·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 만취 의사 여성환자 침대서 자다 명신살

○전주의 한 병원 수련의사가 만취한 상태로 20대 여성환자가 누워 있던 병실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적발돼 망신.

○24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모 병원에 따르면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인 A씨는 술에 취해 지난 19일 새벽 2시5분께 수술을 받고 이 병원 4층 병실에 입원 중인 B씨 침대에 올라가 코를 골며 함께 자다가 회진 중 인 간호사에 적발.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며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B씨의 몸에선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병원 측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징계할 방침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